

월세50만원 포교당이 15만 불자의 수행처가 되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우학 스님은... 1959년 경북 경주 출생. 동국대 한의대를 다니다 21세에 통도사에서 출가했다. 은사는 성파 스님.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한 스님은 제방의 선원과 무문관 등에서 수행했다. 1992년 한국불교대학의 전신인 영남불교대학을 열었다. 현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불교공부>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인도성지순례> <우학 스님의 빛깔 있는 법문 시리즈> 등 100여 권이 있다.

인류 최초의 종합대학인 인도 나란타대학(那蘭陀大學). 굽타왕조의 왕 쿠마라굽타 1세(415~454)를 시작으로 여섯 군주가 수백년 동안 불사를 이어갔던 곳이다.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가 전법교화를 펼치기도 했던 이곳은 대학이 들어선 후 많은 승려·학자가 공부했다.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스님도 이곳에서 유학하며 불교를 배웠다. 나란타대학은 1915년 발굴된 규모만 남북 500m, 동서 250m에 이른다. 대규모의 사역(寺域)에서는 사각형의 수행처

와 5동의 사찰, 10동의 승방(僧房)터가 발굴됐다. 한국에도 나란타대학 같은 곳이 있다.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한국불교대학(舊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그곳이다. 대구시 남구 봉덕3동 대로변에 자리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연건평이 5000여 평에 이르는 메머드급 도심사찰이다. 지하2층 지상7층 건물에는 법당과 강원, 선방, 출판사, 스튜디오, 박물관, 도서관, 서점, 꽃집, 용품점, 어린이집과 유치원, 노인전문병원, 남골당 등 없는 시설이 없다.

회주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20여 년 전인 1992년 5월부터 신도들과 한마음으로 일구었다. 2012년 5월 15일이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창건한 지 20년이 된다. 우학 스님 만의 비전과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교대학’ 플래카드만으로 140명 모아
스님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창건한 것은 우연, 아니 운명이었다. 삼촌의 죽음을 통해 생사일대

사에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스님. 우학 스님은 행자 시절부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제기 있었다. 출가를 반대했던 식구·친구들을 피해 양산 통도사에서 남양주 봉선사까지 갔지만, 큰그릇을 알아본 월운 스님은 우학 스님을 다시 통도사로 돌려보냈다. 스님은 생명에 대한 고민을 풀고 싶어 선방을 전전했다. 선방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우학 스님의 고민은 풀리지 않았다. ‘한국 간화선은 막무가내로 체계가 없다’는 생각에 동국대 선학과도 가고 강원에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대구를 지나는데 포교당 한 곳이 운영이 안돼 교회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처님이 앉았던 곳에 십자가가 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의 포교당 살림을 시작했다. 신도 몇몇이 참가를 하며 포교당의 보증금과 월세를 도왔다.

“당시 해체비로 125만원을 받아 갖고 있었습니까. 100만원은 중고 복사기를 한 대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플래카드 10장을 만들었습니다. 일일이 전봇대에 올라가 걸었습니다.”

플래카드에는 불교대학 모집 내용이 실렸다. 순식간에 1기생 140여 명이 모였다. 영남불교대학이

터 일요일 하루 종일 공간을 활용해도 80평 법당이 포화상태가 됐다. 10여원이 넘는 돈을 빌려 불사를 시작했다. 신도들의 힘은 대단했다. 3년 여 만에 부채를 모두 갚았다. 7층 규모의 현재 법당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훈병원, 영대병원 등 병원은 물론 교도소·군부대 법회도 진행했다.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도 체계화해왔다. 2000년에는 복지법인의 직원이 100여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증축도 계획 중이다.

우학 스님은 “안거를 지키고 수행에 힘쓴 것이(지금까지 불사를 이룬)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스님이 안거 중인 동안 신도들은 자율적으로 사찰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대학은 저절로 투명하게 운영됐다. 우학 스님은 2004년 백담사 무문관에서 수행했다. 무문관 수행경험을 살려 단기사찰로는 드물게 갑포도랑에는 무문관을 열었다.

한국불교 일류화 위해서는 네트워크 절실

스님은 사찰 규모가 커지자 단기사찰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2000년 미국을 다녀오면서 우학 스님은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세계 무대에서 서 보니

한국불교대학은 교리와 수행이 함께 하는 공간 열린사고·대중친화력·투명운영 등이 성공 요인

시작된 순간이었다. 처음 포교당을 인수했을 때 신도수 16명이 한달 후 불교대학 간판을 붙이자마자 10배수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지금은 신도수가 15만명에 이른다.

우학 스님은 직접 강의도 했다. 교재도 시중의 책이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든 교재를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 10시간 이상 연구하고 준비하며 강의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한국불교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교리와 수행이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경전을 가르쳐 신도들의 의식이 깨어오 수행이 뒤따라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전을 공부해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직접 걸으며 수행의 참맛, 참선의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한국불교대학과 대관음사가 둘인 듯 둘 아닌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교리공부가 수행으로, 수행은 봉사로, 봉사는 포교로 한국불교대학은 확실히 자리매김돼 갔다. 스님은 곧바로 어린이 법회도 시작했다. 순식간에 3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불자라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열었지요. 어린이포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우학 스님의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실천했다. 한 사람이 3명씩 포교했다. 4년 반이 지나니 월요일부

한국불교가 전무하더라는 것. 스님은 네트워크와 국제화를 발원했다. 영남불교대학을 한국불교대학으로 관음사였던 사명을 대관음사로 바꾼 것도 이때이다. 우학 스님은 네트워크를 위해 대구 대관음사를 중심으로 100개 도량 건립을 발원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 중이다.

“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자생하려면 단기사찰로는 역부족입니다. 현재사찰을 갖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도량과도 연계돼야 한국불교의 세계화·현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현대화·대중화를 위해 불교사적의 보급에도 주력했다. 1993년 출판사를 만들었고, 1996년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가 대히트를 쳤다. 한국불교대학 초기 시절부터 직접 교재를 만들어 보급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스님의 저서는 100여 권, 교리서를 포함하면 200여 종에 이른다.

우학 스님은 인터넷 포교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 불교대학이 운영 중인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마(cafedaum.net/indelamang)는 국내 불교커뮤니티를 손꼽았을 때 빠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스님은 법문을 동시 방송했다. 대구 대관음사를 비롯해 서울 제기동 도량, 미국, 독일 등 전세계에서 동시에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이런 불사를 진행하는 동안 스님은 한국 간화선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탈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평생부자지갑 다라니福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을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전연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고 불경 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법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몰라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를 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

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선물, 기증, 의류권,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의율실, 목욕탕, 대안,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김장현,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목련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인터넷,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사교회, 사업장 위생 등 여러 사업장의 비방

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도 내놓았다. '선관쌍수(禪觀雙修)'가 그것이다. 우학 스님은 이를 위해 사나와 사마타, 명상 수행의 장점을 모으고 간화선 수행차제를 체계화시켜 저서 <완벽한 참선법>에 담아 대중에 소개했다.

한국불교대학의 3대지표는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이다. 근본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세계불교를 통해 불교의 세계화를 이루며, 첨단 문명을 활용해 불교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미래를 말하기 전 어린이 포교부터

우학 스님은 "불교가 바로 서려면 스님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포교를 예로 들었다. "광역시인 대구에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여는 곳이 9곳이 채 안됩니다. 10개 미만 사찰에서 10~20명씩 어린이 청소년을 포교해봐도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산중사찰이라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학 스님은 "사찰이 도심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인구가 절반 이상일때는 산중사찰도 문제가 없지만 이농이 심해진 상황에서는 사중살림을 꾸리기도 어렵다는 설명이 따랐다. 스님은 "무조건 각 동에 분원과 포교당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불교대학은 NGO단체인 사단법인 참좋은인연 B.U.D.도 결성했다. 네팔 불가촉천민의 마을에 보육원을 지어주기도 했다. 이는 불자라면 당연히 이웃을 도와야 하고 더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스님의 비전에서 비롯됐다.

우학 스님은 문화포교도 강조했다. 해외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은 불교문화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보다 앞서 불교의 우수성, 재미를 대중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스님은 문화를 포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불교대학에서는 매일 점심이면 발우공양이 진행된다. 음성공양을 위한 합창단도 8개 조직이 활동 중이다. 사물놀이팀도 있다.

우학 스님은 신도교육 만큼이나 승가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주기적으로 불교계 신문에 행사모집공고를 낸다. 현재 참가자 60여 명.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다. 우학 스님은 "상좌들이 공부를 원하면 얼마든지 시켜준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학은 매일 부처님 교리를 배우고, 매일 기도와 수행을 한다. 법당과 강당마다 참선 독경 전언 절 사경 등 자신만의 수행법으로 자신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들 한국불교대학도반들은 1997~2007년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2008년부터는 2040년까지 33년 기도를 수행정진 중이다.

2040년까지 1000개 분원 세운다

우학 스님은 앞으로 국내 500개, 해외 500개 모두 1000개의 분원을 세우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온 인류가 불교로 인해 행복해질 수 있는 도량 건립이 스님의 꿈이요 비전이다.

스님은 "불교는 행복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종교"라며 "행복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하고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이 곧 불교가 돼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우학 스님은 생활이 곧 불교가 되는 예로 ▶매일 30분 좌선 ▶<금강경> 독경 ▶1시간의 관음정진 ▶이웃을 위한 선행 한가지 ▶1인 두사찰 포교하기 등

을 꼽았다. 스님은 아이와 노인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를 꿈꾼다 했다. 그것을 이룬 곳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이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노인요양센터, 노인병원, 남골당까지 모두 갖춘 이곳은 불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곳, 새로운 개념의 도심총림이다.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성공요인을 열린 사고, 수행력, 대중친화력, 투명운영, 부단한 자기성찰로 꼽았다. 스님은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수행에 기반한 신도와의 교감 외에 스스로 자

기점검을 철저히 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의와 법문은 쉬울수록 좋다고 말했다.

"불자라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해서 힘을 갖췄다면 그 힘을 이웃을 돕는데 써야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통해, 우학 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대구시 공덕동에 자리한 한국불교대학관음사는 영남불교의 새 포교 지평을 열고있다.



다락방을 이용해 만든 박물관.



계단 틈을 이용한 비무장.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선학과 교수

방(棒)

종강시간이 되었다. 이 무렵이 되면 늘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얼마만한 편달이 있었는지, 편달과 편복(鞭扑)은 동의어이다. 채찍 편(鞭)자는 사람을 지도하는 회초리를 뜻하고, 매질할 달(捷)자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때린다는 말이다.

이번 강좌에 죽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가 열심히 정진하였으나 개중에는 앞으면 이내 받아 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죽비선물이 가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귀는 귀하게 여기고 의식은 천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 졸다가도 방선 죽비소리는 영롱하게 알아듣고 자세를 푼다. 약산유림 선사가 이고에게 "어찌 귀는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는가?"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장마를 대비하여 농부는 부실한 독을 편비내 한다. 우리도 알찬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할 일

파라"라고 비명을 지를 때 크게 깨치게 되었다. 후일 이렇게 깨달은 운문은 동산을 가르친다.

<무문관> 제15칙에 동산삼돈(洞山三頓)이다. 운문 선사에게 동산이 찾아오니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동산은 "사도(查澗)에서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래 하얀거는 어디서 났는가" "예, 호남의 보자사(報慈寺)에서 지냈습니다." "어느 때 그곳을 떠났는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 이 때 운문 선사가 "그대에게 삼돈방을 때릴 것이냐 용서한다." 동산이 이를 날 운문 선사를 찾아 물었다. "어제 스님으로부터 '삼돈방을 때릴 것이냐 용서한다' 하셨으니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보야. 강서·호남하고 어디로 돌아다니던 말이야." 동산은 이때 대우했다.

선에서는 삼돈방 뿐만 아니라 일돈방(一頓棒), 삼십돈방(三十頓棒)도 말한다. 일돈(一頓)이란 곤장을 한 번 치는 것이다. 물록 돈(頓)자

운문은 사흘간 문전박대 끝에 목주 선사 알현

늘 깨어있는 자만이 진보와 기약이 있다

이 많다. 그래야 발전을 기약할 수도 있다. 근자에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의 말을 잔소리쯤으로 치부해 버리기 일쑤이다. 그러나 예전의 구법자들은 그 양상이 영 탄판이었다.

운문의 눈을 뜨게 한 스승은 목주(睦州; ?~850) 선사였다. 황벽회운의 제자로 호를 진존숙(陳尊宿)이라 하였다. 선사의 가풍은 누가 찾아오면 문을 닫아 버렸다. 운문이 처음 찾아갈 때도 역시 문을 닫고 "누구나"고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운문입니다"라고 문밖에서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스님의 지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 문을 빼주도록 열고 운문의 얼굴을 잠깐 내다보고는 그만 문을 광 닫아 버렸다. 운문은 연 사흘 동안이나 이 지경을 당했다. 나흘째 되는 날 만일 목주 선사가 문을 열거면 하면 그 틈을 타서 들어 갈 작정을 했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에 들어갔다. 이때 운문의 벽살을 잡고 한마디 일러보라고 다그쳤다. 꿀 먹은 벼어리가 된 운문을 밖으로 내치면서 하는 말이 "진시지도역찬(秦時之鐵鑿)"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진시황 35년 상림원(上林苑)에 아방궁(阿房宮)을 지을 때 쓴 큰 못에도 새겨져 있다. 이 못은 너무 커서 보물 집에서는 쓰지 못한다.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밤벌레라고 욕지거리 할 때 쓰는 말이 되었다. 이 한쪽 같은 녀석이라고 떠밀어 댕을 때 운문의 곁 발이 문틈에 끼었다. "아이고"라

로 혼외 알고 있는 돈은 곤장을 치는 횡수를 말한다. 원래 중국에서 죄인을 벌주기 위하여 곤장으로 때렸다. 형법에서 일돈을 20방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선원에서 삼돈방은 횡수로 60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삼이란 숫자는 횡수가 많다는 말이지 실수(實數)의 삼(三)은 아니다. 방(棒)이 스승의 자비심으로 학인의 수행을 견책하기 위한 방편인데 여기에 무슨 폭력의 의미가 조금인들 있겠는가. <임제록>은 임제 선사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상당·시중(示衆)·감변·행록(行錄)의 4장으로 나누어 있다. 상당(上堂)에서는 일돈방이 감변(勘辨)에서는 삼십방이 나온다. 덕안이 수시(垂示)하기를 "도를 깨쳤다고 해도 삼십방이요. 도를 깨치지 못했다 해도 삼십방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방이 자비심으로 학인의 수도 경지를 견책하는 선사의 필수적인 도구이듯이 편달도 스승의 사람이 담긴 도구임에 의심할 바 없다. 제아무리 유용한 정보라도 이용자가 찾아내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방의 견책을 거부하는 수행자에게는 선지식의 가르침도 부질없는 낚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의미 없이 나무끼는 개지의 나무껍질이 되고 말 것이다. 깨어 있는 자만이 진보가 있고 기약이 있다. 깨어있는 자에게 한마디의 말이나 단어 하나가 새로운 세계의 창을 열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정신세계의 내적인 여행을 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구 개인용온열복대: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앓배가 병하거나 손발이차서온 *오심전,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벅지 뒷면엔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름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
 서는 3~4일 먼저 선처럼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다른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지국건강메트, 오심선조기, 오주배개등 지대품대양)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 불경 뉴롬비니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담배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평무야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형문화재 50호 고희암스님의 수제사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 범주사, 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용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규격 8.5x5.2x2.0cm) 가격 34,000원(건설지포함)
 *롬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02-723-9184)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